

행복한 금요 편지

행복? 사랑이 있는 고생!

신백훈

하모니십 연구소 대표¹⁾

김형석 철학박사께서 하신 말씀이다.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입니다." 이 말은 나의 오랜 의문점을 일거에 풀어 준 말이다.

주폭 남편과 7남매 어머니의 행복은?


우리 가족은 7남매가 초가삼간집에 살았다. 아버지는 목수(木手)인데 애주가(愛酒家)라기 보다는 폭주(暴酒)가였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 주정이 심하였다. 아버지 주정(酒酺)부림에 어머니와 우리는 참으로 힘들었고 특히 어머니는 "너희들 아니면 내가 벌써 죽었다"며 울고 지내시는 모습을 보며 자라왔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나는 커서 절대 술주정만은 하지 않겠다고 했고, 성인이 되어서도 애주가(愛酒家)이면서도 술을 마시면 화도 풀리고, 싸우지도 않고, 너그러워 진다는 습관을 길렀다. 아버지가 반면교사가 된 셈이다.

커서도 어머니만 생각하면 마음이 안쓰럽다. 어머니는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불행의 삶만을 살다 가신 것이라고 그저 안타까운 마음뿐이었다.

아! 우리 어머니는 무슨 낙(樂)으로 살았을까? 참으로 그리도 불쌍하게 사신 인생 72세에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 부디 저승에서라도 행복의 낙을 누리소서하는 마음이 늘 마음속을 차지하였다.

1) 행복편지를 기고해 주신 신백훈 하모니십 연구소 대표는 철학박사이시며 2016년에는 '신법명심보감'을 발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60이 넘어야 철이 든다고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라는 말을 듣고 우리어머니의 인생이 우리 7남매를 어려운 여건에도 키우고 결혼시켰으니 행복을 누리신거구나 하고 이해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느끼는 불가사의(不可思議)는 어떻게 초가삼간집에서 7남매를 낳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동네에 모텔이 있는 것도 아닌 시절에 전혀 내가 눈치도 못채게 나 이후로 동생을 네 명이나 만드는 부부사랑을 할 수 있었는가는 참으로 신기하다.

주정에서 깨어난 아버지는 정말 인자하였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주정을 미워하다가도 가끔씩 보신탕도 정성스럽게 해주시고, 보약도 달여 주시고, 새끼회(제주도에서는 '돼지 새끼회'라는 특별한 강장 음식이 있었다)를 만들어 주시고 하는 걸 보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두분 만이 사랑의 비법 이었는가? 이제 이해가 된다.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란 것을 확실하게 공감이 된다.

아! 나도 사랑이 있는 고생을!

시집간 딸이 외손자 하나만 낳고 그만 두겠다는 것을 '사랑고생행복'이라는 말로 권유를 하였더니 둘째 외손자를 낳았다. 고생은 되겠지만 그게 행복한 것을 알 면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둘째 외손자가 100일도 못되어 폐렴증세로 입원을 하였다. 참으로 안쓰럽고 둘째를 낳으라 한 내가 이거 무슨 짓 했나 자괴감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 퇴원해 미소 짓는 애를 보는 행복을 누린다.

지금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있다. 자유대한민국을 이 외손자들에게 물려줘야지, 포퓰리즘, 사회주의가 득세하여 진정 힘없는 서민이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서야 후손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후손을 위해 사랑이 있는 고생으로 국민포럼 운동에 나서 고생해야 하겠다. 이게 행복이란 걸 알기에 즐거운 다짐이다.

한선행복포럼에서는 '행복한 금요편지'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